

# 학교 문법에서의 ‘동화’와 ‘모음동화’의 처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특히, ‘활음 첨가’, ‘모음조화’의 기술을 중심으로 —

배영환\*

## || 차례 ||

- I. 서언
- II. 학교 문법에서의 ‘동화’의 처리에 대한 검토
- III. ‘모음동화’의 성격과 학교 문법의 처리 방안
  - 3.1. ‘활음 첨가’의 성격과 학교 문법의 처리 방안
  - 3.2. ‘모음조화’의 성격과 학교 문법의 처리 방안
- IV.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학교 문법의 음운의 변동 단원에서 기술하고 있는 ‘동화’와 동화의 하위 내용인 ‘모음동화’ 중 ‘활음 첨가’와 ‘모음조화’의 처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먼저 학교 문법에서 음운 동화의 일종으로 제시된 ‘동화’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교체’의 일종이므로 교체와 대등하게 기술될 내용은 아니다. ‘동화’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은 기준이 다른 음운의 변동의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음운 변동 양상인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을 기술하고 ‘교체’의 하위분류로 ‘동화’를 설명하는 것이 체계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개정 『국어 I』 교과서 16종 중 이러한 체계를 따른 것은 불과 3종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 문법의 모음 동화 중 ‘이-순행동화’와 ‘모음조화’는 음운 변동의 양상을 살펴보면 ‘동화’라 보기 어렵다. 특히 ‘이-순행동화’는 <표준 발음>, 『표준국어대사전』, 학교 문법 등의 기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문제

---

\* 서원대학교

로 지적될 수 있다. 또, 이는 두 음운 연쇄에 반모음 ‘l’가 첨가된 것이기 때문에 ‘동화’가 아니라 ‘음운 첨가’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음운 동화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고 음운의 ‘첨가’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 ‘모음조화’의 경우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을 각각 분류할 수 있는 음성학적, 음운론적 자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혹, [양성성]이라는 자질을 만들 수도 있으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모호하고 무엇보다 그것이 음운의 동화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알 수 없다. 또 현대국어에서는 음성모음화에 의해 모음조화가 위축되었으므로 더 이상 모음조화는 동화로 볼 수 없다.

주제어 : 학교 문법, 동화, 모음동화, 활음 첨가, 모음조화

## I. 서론

2007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대 상황에 맞게 교과과정을 개편한다는 취지 아래 국어과 교육 과정을 새롭게 고시하였다. 새로 고시된 국어과 교육 과정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지적될 수 있겠지만 이전에 사용되었던 차수를 없애고 다만 ‘개정’이라는 양식을 취하게 되어 이전과는 사뭇 다른 형식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에 따라 2009년에는 국어 과목에 변화가 생겼고<sup>1)</sup>, 이에 따라 고등학교 『국어 I』, 『국어 II』,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을 선택 과목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2011년부터는 고등학교 『국어』 교재가 검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되어 국어과 교육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되었다. 그중 <문법> 교과과는 단일한 체제하에서 『독서와 문법』의 통합 교과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문법 교육의 내용이나 체계는 간소화되었지만 이는 문법 교육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대표적으로 국어과의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이루어지고,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바뀐 교과 과정에 따라 문법 교육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왔다. 무엇보다 문법 교육의 기초가 되는 문법 교과서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다양한 교과서 속에는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또 여러 모양으로 나누어져 있어 학교 문법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7차 교육 과정 체제에서 만들어진 『문법』 교과서는 여전히 학교 문법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의 『국어』 교과서나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문법 부분 역시 『문법』 교과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sup>2)</sup> 그러므로 개정된 『국어』 교과서와 『독서와 문법』, 그리고 『문법』 교과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학교 문법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양성과 실용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통일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소략한 경우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 학문 문법의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가르치기 위하여 만든 학교 문법이 학문 문법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어떠한 현상을 기술할 때는 되도록 기준을 단일화할 필요도 있다. 층위가 혼란되어 기술된다면 그만큼 현상이 복잡해지고, 이것은 곧 학습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문법은 초창기 문법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 받아 오는 가운데, 최근의 학문 문법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만, 주로 문법론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음운론 분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신지영(2007), 박덕유(2007), 배영환(2010), 이래호(2011) 등

2) 물론 현재의 학교 문법은 『문법』 교과서에 비해 간소해진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문법적인 기술 내용은 매우 소략한 실정이고, 더구나 음운론 분야의 내용은 더욱 소략한 편이다.

이 주로 학교 문법의 음운론 관련 부분을 논의한 것인데, 그중 신지영(2007)은 학문 문법의 성과가 학교 문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 아래 7차 교육 과정의 문법 교과서의 음운론 쪽의 기술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한 것이다. 또, 배영환(2010)은 문법 교과서의 구성 체재와 음운의 변동 부분의 문제점을 논의한 것이고, 이래호(2011)은 개정 국어과 교과서에 나타난 음운의 변동 부분을 16종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동화’와 ‘모음동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는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학교 문법에서의 ‘동화’와 ‘모음동화’의 처리에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본고는 학교 문법에서 중요하게 기술하고 있는 ‘동화’의 성격을 검토하고, 그것이 음운 변동의 종류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또, 동화의 하위분류에 속하는 ‘모음동화’ 가운데 이른바 ‘활음 첨가’와 ‘모음조화’가 과연 ‘모음동화’로 처리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7차 교육 과정 속의 『문법』 교과서와 개정 『국어 I』 교과서, 그리고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기술 양상을 먼저 검토해 보고 이들의 기술 양상을 토대로 학교 문법에서 바람직한 ‘동화’와 ‘모음 동화’의 기술 방향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한다.<sup>3)</sup>

## II. 학교 문법에서의 ‘동화’의 처리에 대한 검토

국어 음운론에서 ‘동화(assimilation)’란 어떤 음이 인접한 음과 비슷해지거나 아주 같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조음의 편의를 위한 노력 경제 원

3) 이러한 논의는 음운 변동의 전반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면 관계로 ‘동화’의 처리와 모음 동화 중 ‘이-순행동화’와 ‘모음조화’의 처리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칙에서 나타난 것이다.<sup>4)</sup> 국어 연구에서 음의 동화를 언급한 이른 시기의 연구는 주시경(1914)에서의 ‘닿소리 잇어 박구임(자음접변)’으로 알려졌다. 주시경(1914)에서는 ‘닿소리 잇어 박구임’을 제시하였는데, 거기에는 ‘비음 동화’는 물론 ‘유음화, 음절말 끝소리 규칙’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음의 ‘동화’를 최초로 언급한 것은 小倉進平(1923)으로 알려졌다. 소창진평(1923)에서는 국어의 음운현상을 ‘음의 동화’라고 하여 거기에는 음운의 교체에 해당되는 음운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음의 동화(音の同化)에는 ‘모음동화’와 ‘자음의 동화’로 나누었는데, 모음동화에는 ‘모음조화’와, ‘사릅이—사리미’ 등과 같은 ‘ㅣ’모음 역행동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모음조화’를 모음의 동화 속에 포함시킨 최초의 논의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5)</sup> 최현배(1929:79)에서는 동화를 ‘소리의 닮음’으로 보아 ‘유성음화’와 ‘구개음화’를 비롯하여, ‘홀소리끼리 닮음’, ‘닿소리끼리의 닮음’ 등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홀소리의 닮음’에는 “‘ㄷ’와 ‘ㄴ’이 서로 닮아 ‘ㄹ’이 되며, ‘ㄴ’과 ‘ㄷ’이 서로 닮아 ‘ㄹ’이 되며” 등과 같이 이른바 ‘ㅣ’모음 역행동화’를 언급하고 있다.<sup>6)</sup> 또, ‘홀소리 고품(Vocal Harmony, 모음조화)’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예로 ‘술술’과 ‘술술’, ‘막아’와 ‘먹어’ 등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이 밖에 ‘홀소리가 닿소리를 닮음’에 ‘구개음화’와 ‘전설모음화’ 등도 예로 설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현대국어의 동화 현상의 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동화를 매우 광범위하게 정리한 것은 이희승(1955)이다. 이희승(1955)에서는 음의 동화를 모음과 모음 사이의 동화, 자음과 자음 사이의 동화, 모음과 자음 사이의 동화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중 모음과 모음 사이의 동화에는

4) 특히 ‘동화’는 생성음운론에서는 두 인접음 사이에서 자질의 변화가 개재되는 경우를 말한다(전상범, 2004:53).

5) 이러한 지적은 이진호(2009:67~68)에서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6) 다만 그것에 해당되는 예를 제시하지 않아 정확히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모음이 선행하는 순행동화와 ‘이’-모음이 후행하는 역행동화, 그리고 ‘간음화’, ‘모음조화’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1) 가. 기+어> 기여, 디다+어> 디디여  
 나. 개+어>개여, 세+어>세여  
 다. 되+어>되여, 쉬+어>쉬여  
 라. 배+에>배예, 수레+에>수레예, 뒤+에>뒤예
- (2) 가. 박+이>백이, 먹+이>멕이  
 나. 사람+이>사램이, 섬+이>섬이  
 다. 남+양>남양(南陽), 박여>백여, 먹+여>멕여

위의 예에서 (1)은 ‘이’의 순행동화로 선행하는 음이 후행하는 음을 동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이희승(1955:131)에서는 ‘이’나 ‘ㅣ’가 첨가되어 성립된, ‘ㄱ, ㅋ, ㆁ, ㆁ, ㄷ, ㅌ, ㄴ’ 등에 어미 ‘-어’나 조사 ‘에’가 결합될 때에 각각 ‘여’와 ‘예’로 변동되는 것을 동화의 일종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모음의 동화로 처리한 최초의 논의로 볼 수 있다. 또, (2)는 후행하는 음이 선행하는 음을 동화하는 것으로 ‘역행동화’로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체언이나 용언에 모두 가능하고 ‘이’ 모음 앞뿐만 아니라 ‘여’ 앞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7)</sup> 이 밖에 이희승(1955)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모음의 동화로 처리하였다.

- (3) 가. 가+히>가+이>개(犬)  
 나. 거+이>게(蟹)

7) 다만, 이희승(1955)에서는 ‘이’-모음 역행동화에 대하여 개재자음에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 (4) 가. 보아서, 보아야, 보아라  
나. 주어서, 주어야, 주어라

(3)은 이희승(1955)에서는 ‘間音化’로 보았는데, 두 가지 모음이 모일 때 그 두 소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서로 변하여 한 개의 중간음으로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에는 ‘아, 어, 오, 우’ 모음 다음에 ‘이’ 모음이 와서 ‘애, 에, 외, 위’ 등으로 변동되는 것을 말하는데, 흔히 ‘음절 축약’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4)는 ‘모음조화’를 말하는데, ‘모음조화’ 역시 모음의 동화로 보았다. 무엇보다 모음동화를 ‘이’-모음 순행동화와 ‘이’-모음 역행동화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모음조화 역시 모음 동화의 일종으로 처리하였다는 점에서 학교 문법의 기술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 밖에 허웅(1978:273)에서는 음운 변동 자체의 성질에 따라, ‘歸着, 동화, 축약, 생략, 첨가, 이화’ 등으로 구분하고, 동화에는 ‘자음접변, 구개음화, 우물라우트, 모음 사이 자음의 간극 동화’<sup>8)</sup> 등을 설정하였다. 또 ‘모음조화’를 음운의 변동과 동일한 자격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동화’를 음운 변동의 한 양상으로 ‘귀착, 탈락, 축약, 첨가’ 등과 대등하게 보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볼 때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동화 현상이 논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넓고 특히 학교 문법과 마찬가지로 ‘동화’ 현상을 음운 변동의 양상인 ‘교체, 탈락, 축약, 첨가’ 등과 대등하게 처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소창진평(1923) 이래 허웅(1978)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동화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학교 문법에도 그대로 이어져 왔다. 현행 학

8) 모음 사이의 자음의 간극동화는 이른바 ㅁ-불규칙 동사의 경우 ‘ㅁ’가 간극이 큰 모음 사이에 개재되어 간극의 동화를 입어 모음에 가까운 ‘w’나 ‘u’로 변했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곧 ‘ㅁ’를 기저형으로 하고 나머지는 ‘ㅁ’에서 도출된 것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교 문법의 내용을 가장 충실하게 담고 있는 교재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간행한 『문법』 교과서로 볼 수 있는데, 『문법』 교과서에는 음운의 변동과 ‘동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5) 음운의 변동에는 어떤 음운이 형태소의 끝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한쪽의 음운이 다른 쪽 음운의 성질을 닮는 **동화**,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 두 음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탈락**, 형태소가 합성될 때 그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첨가** 등이 있다.

위의 예는 음운 변동의 종류에 대한 기술로 볼 수 있는데, 먼저 동화 현상을 ‘교체’와 ‘축약’, 그리고 ‘탈락’과 ‘첨가’와 함께 음운 변동의 양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문법』 교과서에 ‘동화’라고 제시된 음운 현상에는 ‘자음동화’와 ‘모음동화’, 그리고 ‘모음조화’가 있다. 자음동화에는 ‘비음동화’와 ‘유음화’, 그리고 ‘구개음화’ 등이 있다. 이들에 제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6) 가. 밥물→밤물, 잡는다→잠는다  
나. 만며느리→만며느리, 받는다→반는다  
다. 국물→궁물, 속는다→송는다

(7) 가. 신라→실라, 칼날→칼탈  
나. 섬라→섬니, 백로→뱅노

위의 (6~7)은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자음동화를 예로 보인 것이다. (6)은 자음동화 중 비음동화를 나타낸 것이고, (7가)는 유음화, 그리고 (7나)는 ‘ㄹ’의 비음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밥물’이 ‘밤물’로 변동된 것은 변동의 결과를 따져 보면 ‘ㅂ’가 비음인 ‘ㅁ’ 앞에서 비음인 ‘ㅁ’로 바뀐 것이



다. 마찬가지로 '신라'가 '실라'로 변동된 것 역시 'ㄴ'이 'ㄹ'로 변동되었다. '섭리'는 이른바 학교 문법에서는 상호동화의 예로 거론되던 것인데<sup>9)</sup>, 'ㄹ'가 'ㄷ' 뒤에서 'ㄴ'이 된 후에 'ㄴ' 앞에서 다시 'ㄷ'이 비음화를 겪은 예이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법 교과서의 기술 내용은 현재 개정 국어교과 과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현행 학교 문법의 면모를 알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 『국어 I』 교과서와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의 '문법'이다. 그런데 고등학교 『국어 I』은 전체 16종이고<sup>10)</sup>, 『독서와 문법』은 4종이<sup>11)</sup> 나와 있다. 이중 『국어 I』에서 '음운의 동화' 현상을 제시한 유형은 대체로 4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음운의 동화를 언급한 것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고, 동화를 언급한 경우는 다시 '교체(대치), 축약, 탈락, 첨가, 동화'와 같이 음운 변동의 양상을 5가지로 나누어서 본 경우, 그리고 그러한 음운 변동의 양상을 제시하지 않고 음운현상 별로 수록한 경우, 그리고 동화 현상을 '교체(대치)'의 한 유형으로 보고 '교체(대치)'의 하위분류한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9) 이들을 상호동화로 볼 수 없다는 논의는 이진호(2008)을 참조할 수 있다.

10) 16종은 출판사를 기준으로 '교학사, 금성, 더텍스트, 두산동아, 디딤돌, 미래엔 겐치그룹, 비상교육, 유웨이중앙교육, 좋은책 신사고, 지학사(1), 지학사(2), 창비, 천재교육(1), 천재교육(2), 천재교육(3), 해냄에듀' 등을 말한다. 이중 편익상 제1저자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학사(1)은 박갑수 등이 저자이고, 지학사(2)는 방민호 등이 저자인 책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천재교육(1)은 김대행 등이 저자이고, 천재교육(2)는 김종철 등, 천재교육(3)은 박영목 등이 저자인 교과서를 지칭한다.

11) 여기에는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이 있다.

〈표-1〉 국어 I 교과서의 ‘음운의 동화’ 수록 양상

구분	동화 현상 제시			제시 없음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교학사	○			
금성출판사		○		
더텍스트		○		
두산동아			○	
디딤돌				○
미래엔컬처그룹			○	
비상교육	○			
유웨이중앙교육		○		
좋은책신사고	○			
지학사1		○		
지학사2		○		
창비				○
천재교육1		○		
천재교육2		○		
천재교육3	○			
해냄에듀			○	

위의 표에서와 같이 『국어 I』 교과서는 ‘동화’ 현상을 제시한 교과서와 제시하지 않은 교과서로 일단 나눌 수 있다. 또 ‘동화’를 제시하더라도 음운 변동의 양상인 ‘교체, 탈락, 축약, 첨가’ 등과 대등하게 제시한 경우가 1유형의 교과서로 모두 4종류 교과서에서 확인된다. 또, 음운 변동의 양상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 중요한 음운현상을 평행하게 나열한 경우도 보이는데, 제2유형이 그것이다. 이 밖에 제3유형은 ‘동화’ 현상을 제시하기는 하되 ‘교체(대치)’의 하위 유형으로 설명한 경우이다. 그리고 ‘동화’를 아예 수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디딤돌’이나 ‘창비’ 교과서의 경우 음운의 변동을 교체(대치), 탈락, 축약 첨가 등 네 가지로 구분한 가운데, 교체 등에도 음

운의 동화를 언급하지 않은 교과서로 볼 수 있다. 『독서와 문법』 교과서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

<표-2> ‘독서와 문법’의 음운의 변동 기술 체계

구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음운변동의 유형	대치, 탈락, 첨가, 축약	대치, 축약, 탈락, 첨가	교체, 동화, 탈락, 첨가, 축약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동화	-	-	○	-

위의 표에서와 같이 『독서와 문법』 교과서는 모두 4종이 있는데, 동화 현상을 다루지 않은 교과서가 대부분이다. 4종 교과서 중 ‘동화’를 다룬 교과서는 ‘지학사’가 유일하다. 나머지 책에서는 동화 현상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다. 또 동화를 다루더라도 ‘교체, 탈락, 첨가, 축약’ 현상과 대등한 층위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동화’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등과 동일한 층위에서 기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sup>12)</sup> 왜냐하면 음운의 변동의 양상은 두 음운이 충돌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나, 한 음운이 탈락하거나, 두 음운이 합쳐져 다른 하나의 음으로 되는 경우, 그리고 두 음운 사이에 다른 음이 첨가하여 충돌을 해소하게 된다. 또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을 닮아간다고 하더라도 변화의 양상으로는 ‘교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sup>1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문법에서는 이러한 예들을 오랫동안 ‘동화’의 예로 취급해 온 것이다.<sup>14)</sup>

12) 음운의 변동을 ‘교체(또는 대치), 탈락, 축약, 첨가’로 보는 대표적인 논의는 배주채(1996), 최명옥(2004), 이진호(2005)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3) 이진호(2005), 배영환(2010) 등에도 이러한 지적이 있다.

14) 가령, ‘꽃→꽃’의 변동은 ‘ㄷ’가 자음이나 휴지 앞에서 ‘ㄷ’로 변동되는데, 이와 같은 사정은 ‘밥물’이 ‘밤물’로 되는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동화’가 국어나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중요한 음운의 변동이기는 하지만 학교 문법과 같이 가르치기 위해 만든 문법에서는 되도록 단일한 기준에 의해 현상을 기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약 제시된 기준이 여러 층위라면 학습자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면 이들 ‘동화’와 ‘교체’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동화’는 ‘교체’의 여러 유형 중에 한 음소가 인접한 다른 음소를 닮아 가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즉 ‘동화’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8) 가.  $[a] + [b] \rightarrow [b' + b]$

나.  $[a] + [b] \rightarrow [a + a']$

위의 예는 동화 현상을 형식화한 것인데, (8가)의 경우  $[b]$ 라는 자질을 가진 후행 음소 앞에서  $[b]$ 의 자질의 성격을 가지지 않았던  $[a]$ 가  $[b]$ 의 영향으로  $[b]$ 와 같은 자질을 가진  $[b']$ 로 변동되는 것을 보인 것이다. 즉, 후행음의 자질 속성에 의해 선행음이 동화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8나)의 경우는 선행음에 의해 후행음이 동화되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 이들은 모두 닮아 간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a \rightarrow b'$ 와  $b \rightarrow a'$ 로 바뀐 것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화는 교체의 일종으로 교체가 단지 다른 음소로 바뀌었지만 인접음과 닮은 성질이 없이 제3의 음소로 바뀐 반면 동화는 바뀌었지만 인접음과 비슷한 자질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화 현상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학교 문법에서도 ‘동화’ 현상을 ‘교체’의 하위 부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동화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교체의 하위 부류로 놓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같은 교체의 대표적인 예와 함께 놓되 음운의 동화 아래 비음동화나 유음화, 그리고 구개음화 등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와는 달리

‘교체’만 언급을 하고 ‘동화’는 아예 언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동화는 많은 언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음운현상이고, 또 이전의 문법 교과서에도 제시되어 있으므로 동화를 교체의 하위 부류로 놓고 설명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는 문법 기술의 연속성 면에서도 합리적일 수 있다.

### Ⅲ. ‘모음동화’의 성격과 학교문법의 처리 방안

#### 3.1. 활음 첨가의 성격과 학교 문법의 처리 방안

현대국어에는 ‘이, 예, 애, 위, 외’로 끝나는 어간에 모음어미 ‘어’나 ‘오’가 결합될 때 그 사이에 반모음 ‘y’가 수의적으로 첨가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활음 첨가’나 ‘y’ 첨가 등으로 부르는데, 이희승(1955)에서는 ‘이’의 순행동화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순행동화는 <표준 발음>이나 학교 문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표준 발음>의 ‘음의 동화’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이 부분은 흔히 ‘모음의 동화’로 알려졌다.

(9)

제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이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피어[피어/피여] 되어[되어/되여]

[불임] ‘이오, 아니오’도 이에 준하여 [이요, 아니요]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위의 기술은 <표준 발음>에 제시된 것으로서 ‘음의 동화’ 내의 하위 기술 내용이므로 위의 내용이 ‘음의 동화’에 관한 기술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위에 제시된 내용은 ‘ㄷ’나 ‘ㄱ’이 일부 ‘ㅣ’나 ‘ㅁ’ 뒤에서 각각 ‘ㄷ’

나 ‘ㄱ’로 바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위의 기술에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여]로 발음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위에 제시된 ‘피어[피여], 되어[되여]’와 ‘이오[이요], 아니오[아니요]’의 경우에만 이러한 복수발음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선행음이 ‘이’로 끝나는 경우와 선행음이 ‘외’로 끝나는 어간에 ‘-어’가 결합하는 경우 모두에 해당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위의 기술만으로는 위에 제시된 ‘피어, 되어, 이오, 아니오’의 경우에만 한정적인 것 같은데 실제 『표준국어대사전』<sup>15)</sup>의 경우를 보면 그 환경이 제한적이 아니라 선행음이 ‘ㅣ’는 물론 ‘ㅅ, ㅈ’ 등일 때 모두 ‘ㅣ’나 ‘ㄱ’가 ‘ㅅ’나 ‘ㄱ’로 수의적으로 발음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10) 가. 죄--어 : [죄어], [죄여], [췌여]

나. 쥐--어 : [쥐어], [쥐여]

위는 『표준국어대사전』(인터넷판)의 내용을 보인 것인데, 위에서와 같이 어간 발음이 ‘외’인 ‘죄-’와 어간 발음이 ‘위’인 ‘쥐-’ 등에 부사형어미 ‘-어’가 결합될 경우 ‘죄여, 췌여, 쥐여’ 등과 같이 ‘ㅣ’의 수의적인 첨가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규범 문법과 사전의 기술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럽게 느낄 수 있다.

학교 문법에서도 ‘ㅣ’의 첨가에 대한 기술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문법』 교과서의 기술 내용이다.

15) 『표준국어대사전』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개방형 사전을 참고하였다.

(11)

한편, ‘ㅣ’의 뒤에 후설 모음 ‘ㅓ, ㅗ’가 오면 ‘ㅣ’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ㅓ, ㅗ’로 바뀌는 일이 있는데, 역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어→[기여],      먹이었다→[머기열따],  
미시오→[미시요],      당기시오→[당기시요]

다만, ‘되어, 피어, 이오, 아니오’의 경우는 [어]와 [오]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와 [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위에서와 같이 『문법』 교과서에는 <표준 발음>을 좇아서 모음동화를 설명하면서 “‘ㅣ’의 뒤에 후설모음 ‘ㅓ, ㅗ’가 오면 ‘ㅣ’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ㅓ, ㅗ’로 바뀌는 일이 있는데,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학교 문법은 표준 발음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표준 발음의 기술 내용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에는 ‘ㅣ’의 첨가가 수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 발음과 『표준국어대사전』을 살펴 볼 때, 결국 모음동화는 ‘이’나 ‘외’ (또는 위) 등의 뒤에 ‘ㅓ’나 ‘ㅗ’가 오면 수의적으로 ‘여, 요’로 변동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의 기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동화’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동화’는 인접음의 영향으로 하나의 음소가 다른 음으로 변동되는 것인데, 위의 ‘기어→기여, 미시오→미시요’ 등은 변동의 결과를 보면 [ə]→[yə], [o]→[yo]로 변동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의 음소가 다른 하나의 음소로 바뀐 것이 아니고 반모음 ‘ㅣ’가 첨가된 것이다. 또, 이러한 양상은 선행 모음이 ‘ㅣ’인 경우 외에도 ‘ㅐ, ㅑ, ㅓ, ㅗ’와 같이 전설모음 계통의 모음 뒤에서도 발견되는 음운 현상이다.

(12) 가. 개어→[개어, 개여], 배어→[배어, 배여]

나. 되어→[되어, 되여], 돼어→[돼어, 돼여], 쥐어→[쥐어, 쥐여]

다. 꿰어→[꿰어, 꿰여]

위의 예에서와 같이 ‘ㅣ’의 첨가는 어간 말음이 ‘ㅣ’인 경우 외에도 말음이 ‘ㅈ, ㅊ, ㅊ, ㅊ, ㅊ, ㅊ’ 등일 경우에도 수의적으로 실현된다.<sup>16)</sup> 이러한 예를 모음동화의 일종으로 처리한 데에는 [-전설성]을 가진 ‘ㅣ’가 [+전설성]을 가진 ‘ㅊ’로 변동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동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두 모음 사이에 ‘ㅣ’가 첨가된 것이므로 음운 변동의 양상으로 볼 때 ‘첨가’의 일종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동화는 인접한 음운에 의해 한 음운이 자질이 변경되고, 또 자질이 동일하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음운이 첨가되어 음운의 전체 개수에 변화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만약 활용 첨가의 예를 동화 현상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 (13) 가. 좋아도→[조와도], 놓았다→[노완따]  
나. 갖추어서→[갸추워서], 꾸었다→[꾸윌따]

위의 예들은 이진호(2005:144)에서 제시된 예들인데, ‘조와도’의 경우 어간 말음 ‘ㅎ’의 탈락에 이어 반모음 ‘ㄱ’이 첨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갸추어서’가 수의적으로 ‘갸추워서’로 실현되는 것을 살펴보아도 반모음 ‘ㅌ’가 첨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예는 선행음이 ‘ㄱ, ㅌ’와 같이 원순모음이고 후행음이 ‘-아/-어’가 결합할 때 수의적으로 반모음이 첨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만약 이들을 ‘기여’와 같이 모음동화의 예로 본다면 이들 또한 ‘모음동화’의 예로 처리해야 할 것이지만 이들을 ‘모음동화’로 보는 건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 대체로 두 가지 정도로 해석

16) 물론 ‘개여, 베여’ 등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지 않지만 흔히 볼 수 있는 발음 양상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음성학적으로 모음과 모음이 직접 결합할 경우 이러한 환경을 회피하려는 현상이 강한데, 모음과 모음이 직접 결합하는 사이에 반모음 ‘l’을 첨가함으로써 모음과 모음이 직접 결합하는 연쇄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sup>17)</sup> 이러한 해석은 모음충돌 해소의 관점에서 볼 때 일면 타당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ㄱ, ㄴ, ㄷ, ㄹ’ 등의 ‘l’의 양음절성에 기인하여 ‘-어X’가 ‘-여X’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들 모음은 주지하듯이 이전 시기에는 단모음이 아니고 하향 이중모음이었는데, 부음 ‘l’이 단모음이 아니고 하향이중모음이었을 시기에 ‘l’의 ‘兩音節性’에 의해 수의적으로 첨가되던<sup>18)</sup> ‘l’이 현대국어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sup>19)</sup> 이러한 ‘l’의 첨가는 ‘ㄴㅅㅅㅅ~비ㅅㅅㅅㅅ’ 등과 같이 한 형태소 내부에서도 실현되던 것인데 중세국어부터 폭넓게 나타났다. 이러한 해석은 통시적인 현상을 통해 공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문법사의 연속성에 있어 장점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해석되든지 ‘기여’류에서 보이는 음운 현상은 음운의 동화로 보기 어렵고 음운의 첨가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동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특히 그러하다. 그러므로 문법 교과서에서나 표준 발음에서의 해당 부분은 동화의 일종이 아닌 ‘첨가’의 예로 설명해야 옳을 듯하다.

17) 이러한 해석이 이문규(2004:266)에 제시되어 있다.

18) 김완진(1964)에서는 양음절성에 대해 ‘interlude’로 설명하였다.

19) 이러한 ‘l’의 첨가는 15세기 국어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6세기 국어에 매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불 쥐여<월인석보,23,89b>, 병이 ㄴ장 되여<번역소학,9,30a>, 씨여<이륜행실도,옥산서원본,22b>” 등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 3.2. ‘모음조화’의 성격과 학교 문법의 처리 방안

‘모음조화’는 대체로 같은 부류의 모음끼리 서로 어울리는 음운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아, 오’가 한 부류를 이루고 나머지 단모음이 한 부류를 이룬다(이진호 2005:133). 이러한 모음조화에 대한 이른 시기의 연구는 소창진평(1923)으로 볼 수 있는데, 소창진평(1923)은 모음조화를 ‘동화’의 일종으로 보았다. 모음조화를 동화의 일종으로 본 것은 최현배(1929), 이희승(1955) 등에도 확인된다. 그런데 ‘모음조화’를 동화의 일종이라고 보는 건 해는 학교 문법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학교 문법의 근간을 이루는 『문법』 교과서에 모음조화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4) 국어의 모음들은 같은 종류의 모음끼리 어울리려는 경향이 있다. 양성모음 ‘ㅏ, ㅑ’는 ‘ㅏ, ㅑ’끼리, 음성모음 ‘ㅓ, ㅕ, ㅡ, ㅣ’는 ‘ㅓ, ㅕ, ㅡ, ㅣ’끼리 어울리려는 현상을 모음조화(母音調和)라고 한다. 용언의 어미가 ‘-아/-어’, ‘-아서/-어서’, ‘-아도/-어도’, ‘-아야/-어야’, ‘-아라/-어라’ 및 ‘-았/-었’ 등처럼 두 가지씩 있는 것도 모음조화로 말미암은 것이다. 모음조화 현상은 모음 동화의 일종으로, 국어의 중요한 특질 중의 하나이다(밑줄 필자).

위의 (14)의 기술 내용에서는 모음조화가 같은 모음끼리 어울리려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고,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모음조화가 모음동화의 일종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내용은 『국어 I』 교과서에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특이한 사항은 모음조화를 수록한 양상은 교재별로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표-3〉 국어 I 교과서의 '모음조화' 수록 양상

구분	모음조화 제시			모음조화 미제시	비고
구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교학사	○				
금성출판사		○			
더텍스트		○			
두산동아				○	
디딤돌				○	
미래엔컬처그룹			○		
비상교육		○			기타로 제시
유웨이중앙교육		○			
좋은책신사고	○				
지학사1		○			
지학사2		○			
창비		○			기타로 제시
천재교육1		○			
천재교육2		○			
천재교육3	○				
해냄에듀			○		

위의 표에서 제1유형은 모음조화를 동화의 하나로 하위 분류한 경우이고, 제2유형은 동화의 한 유형으로 처리하지 않고 중요한 음운 현상 중의 하나로 처리한 경우이다. 제3유형은 모음조화를 동화의 한 종류라고 본 경우이기는 하지만 동화를 '대치'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한 경우이다. 이 밖에 제4유형은 '모음조화'를 아예 제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위의 표를 통해 볼 때 『국어 I』 교과서에서 여전히 모음조화를 중요한 음운 현상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모음조화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모음조화'에 대한 학교 문법에서의 평가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또 다른

선택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4종 교과서 모두 ‘모음 조화’ 현상을 아예 언급하지 않은 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모음조화 현상이 동화 현상인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현대국어에서 음운 과정으로서 모음조화 현상은 용언 어간과 부사형 어미 ‘-아/-어’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정은 한글맞춤법에 잘 드러나 있다.

(15)

제16항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ㅑ’일 적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적에는 ‘-어’로 적는다.

1. ‘-아’로 적는 경우

나아	나아도	나아서	막아,	막아도,	막아서
돌아,	돌아도,	돌아서	보아,	보아도,	보아서

2. ‘-어’로 적는 경우

개어,	개어도,	개어서	되어,	되어도,	되어서
배어,	배어도,	배어서	쉬어,	쉬어도,	쉬어서
주어,	주어도,	주어서	피어,	피어도,	피어서

위의 예에서 모음조화는 어간 말모음이 ‘ㅏ, ㅑ’일 때는 어미 ‘-아’가 결합되고 그 밖의 ‘애, 예, 외, 위, 이’ 등은 ‘-어’가 결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동화 현상이라고 한다면 ‘동화’로 묶을 수 있는 자질이 명확하여 그것이 동화라고 묶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송철의(1996)에서는 동화로 볼 수 있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개략적으로 형식화하였다.

(16) 가.  $[-F][+F] \rightarrow [+F][+F]$

나.  $[+F][-F] \rightarrow [+F][+F]$

위의 내용은 송철의(1996)에서 제시된 것인데, 동화가 의미하는 바는 [-F]가 인접한 [+F]에 의해 [+F]로 동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동화는 두 음운 연쇄에서 한 음운이 해당 자질에 대해 소극적이었는데, 인접된 적극적인 음운에 의해 적극적인 자질로 바뀌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가령, 비음동화의 경우 [-비음성][+비음성]의 연쇄에서 [+비음성][+비음성]의 연쇄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할 때 모음조화를 동화 현상으로 보기에는 먼저 ‘ㅏ, ㅑ’와 그 밖의 모음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자질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ㅏ, ㅑ’를 별도로 묶을 수 있는 음운론적, 음성학적 자질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두 모음은 변별적 자질상으로 함께 묶일 수 있는 공통점이 없다. 후설 모음으로 묶을 수도 없고, 후설 저모음으로도 묶을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에, 애, 위, 외, 으, 어, 우’ 등의 그 밖의 모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자질도 적당하지가 않다. [+저설성]이나 [+고설성], [+후설성], [+원순성] 등 모음의 분류 자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자질이 있지만 이들을 묶을 수 있는 합리적인 자질을 찾기가 어렵다.

한 가지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질이 [+양성성] [-양성성]이다. ‘ㅏ, ㅑ’는 [+양성성]이고, 그 밖의 모음은 [-양성성]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양성성]은 음성학적이거나 음운론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양성성]이 과학적으로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만약 그러한 자질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질이 모음조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동화’는 공통적으로 발음의 편의성에 따른 것이 일반적이는데 자질상의 공통점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모음조화’를 동화로 볼 수 없는 다른 이유는 현대국어에서는 모음조화

를 하나의 규칙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정도로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가령, 『한국방언 자료집』의 경기도 편이 ‘잡-’과 ‘알-’의 ‘-아/-어’의 결합 양상을 지역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7) 가. 잡아X : 연천, 포천, 강화, 김포, 양주, 남양주, 가평, 안성  
나. 잡어X : 파주, 고양, 용진, 시흥, 광주, 양평, 화성, 용인, 이천, 여주, 평택, 안성

- (18) 가. 알아X : 연천, 포천, 강화, 김포, 양주, 남양주, 가평  
나. 알어X : 파주, 고양, 용진, 시흥, 광주, 양평, 화성, 용인, 여주, 평택

위의 (17)~(18)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5)에 제시된 예를 다시 정리한 것이다. 위의 (17)과 (18)은 각각 ‘잡-’과 ‘알-’과 부사형 어미 ‘-아/-어X’와의 결합 양상을 보인 것인데, 모음조화를 따른다면 ‘잡아, 알아’ 등으로 실현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잡어’와 ‘알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기도의 남부 지역은 거의 ‘-어’형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를 비롯한 중부방언도 선행 모음이 ‘아’인 경우 ‘-아/-어’와의 결합에서 음성모음인 ‘-어’와 결합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 환경에서 양성모음인 ‘-아’가 결합하는 경우는 ‘도와, 고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현행 규범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음조화는 더 이상 하나의 음운현상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사실 모음조화는 학교 문법에서는 중요한 음운현상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현재 학교 문법이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 즉 실용적인 면에 치중하여 음운의 변동 부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모음조화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아니다. 그러므로 문법의 간소화를 생

각한다면 과감하게 모음조화는 학교 문법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한다.<sup>20)</sup>

#### IV. 결론

본고는 학교 문법의 음운의 변동 단원에서 기술하고 있는 '동화'와 동화의 하위 내용인 '모음동화'에 대한 기술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학교 문법이 학문 문법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지만 학문 문법에 기대어 되도록 기술이 논리적이고, 기준이 단일해야 학습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동화'와 '모음동화'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다만, 세부 기술 내용을 검토하는 것에서 그치고 학교 문법의 전체적인 기술 내용과 그 선택 기준에 대한 고민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sup>21)</sup> 본고에서 다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문법에서 음운의 변동 중 '동화'는 주시경(1914)에서 언급된 이래, 소창진평(1923), 최현배(1929) 등을 거쳐 발전되었고, 이희승(1955)에서 그 틀이 완성되었다. 그중 소창진평(1923)은 모음조화를, 이희승(1955)에서는 활음 첨가를 모음동화의 일종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이 현재의 학교 문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2. 학교 문법에서 음운 동화의 일종으로 제시된 '동화'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교체(대치)'의 일종이므로 교체와 대등하게 기

20) 다만,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수준에서 검정 교과서의 이와 같은 기술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동화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음운 현상으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1)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대해 본다.

술될 내용은 아니다. ‘동화’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은 기준이 다른 음운의 변동의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음운 변동 양상인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을 기술하고 ‘교체’의 하위 분류로 ‘동화’를 설명하는 것이 체계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

3. 현행 개정 『국어 I』 교과서 16종 중에는 3종만이 교체의 하위부류로 동화를 기술하고 있고 그 외는 여전히 동화를 네 가지 음운 변동과 대등하게 기술하든지, 음운현상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4. 학교 문법에서 다룬 ‘이-순행동화’는 <표준 발음>, 『표준국어대사전』, 학교 문법 등의 기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 이들은 두 음운 연쇄에 반모음 ‘ㅣ’가 첨가된 것이기 때문에 동화가 아니라 ‘음운 첨가’에 해당된다. 이러한 음운 현상은 모음충돌회피나, 활음의 양음절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음운 동화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고 음운의 ‘첨가’ 속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5. 학교 문법에서 모음 동화의 일종으로 처리하는 모음조화의 경우,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을 각각 분류할 수 있는 음성학적 음운론적 자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혹, [양성성], [음성성]이라는 자질을 만들 수도 있으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모호하고 무엇보다 그것이 음운의 동화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알 수 없다. 또 현대국어에서는 음성모음화에 의해 모음조화가 위축되었으므로 더 이상 모음조화는 동화로 볼 수 없다.



## 【참고문헌】

- 강옥미(1997), 『현대국어음운론(개정판)』, 형설출판사.
- 고영근(2004), 「국어문법교육의 방향 탐색-현행 고등학교 『문법』을 검토하면서-」, 『우리말연구』, 우리말학회 15, pp.23~51.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7년 개정 교육 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 김무림(1992), 『국어음운론』, 한신문화사.
- 김민수·고영근 편(2008), 『역대한국문법대계(2판)』, 박이정.
- 김완진(1964), 「중세국어 이중모음의 음운론적 해석에 대하여」, 『학술원논문집』, 김완진(1971)에 재수록.
- 김완진(1971), 『국어 음운체계의 연구』, 일조각.
- 박덕유(2007), 「효율적인 음운교육의 학습방안 연구」, 『새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77, pp.99~120.
- 배영환(2010), 「학교 문법의 ‘음운의 변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어학연구』, 한국중원언어학회 17, pp.95~115.
- 배주채(1996),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 『고등학교 문법』, 교육과학기술부.
- 송철의(1996), 「국어의 음운현상과 변별적 자질」,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pp.342~356.
- 신지영(2006), 「국어 음운론 지식의 교과서 수용 실태와 문제점-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한국어학회 33, pp.1~36.
- 이래호(2011), 「고등학교 국어 검정 교과서의 ‘음운 규칙’ 관련 기술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77, pp.355~385.
- 이문규(2004), 『국어교육을 위한 현대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 이관규(2002), 『학교 문법론(개정판)』, 월인.
- 이관규(2010), 「통합적 국어교육의 가치와 ‘독서와 문법」, 『국어교과교육연구』, 한국국어과교육학회 제18호, pp.91~118.
- 이진호(2005), 『국어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 이진호(2008), 「‘독립(獨立)’류 한자어의 음운론」, 『한국문화』,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44, pp.201~216.

- 이진호(2009), 『국어 음운 교육 변천사』, 박이정.
- 이희승(1955),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 이희승·안병희·한재영(2010), 『한글맞춤법강의(증보)』, 신구문화사.
- 임홍빈(2000), 『학교 문법, 표준 문법, 규범 문법의 개념과 정의』, 『새국어생활』 10-2, 국립국어원, pp.5~26.
- 전상범(2004), 『음운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주시경(1914), 『말의소리』, 김민수·고영근 편(2008)에 재수록.
- 최명옥(2004), 『국어음운론』, 태학사.
- 최현배(1929), 『우리말본 첫재매』, 김민수·고영근 편(2008)에 재수록.
- 최현배(1955), 『우리말본(갑고고침)』, 정음문화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5), 『한국방언자료집 I (경기도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허 웅(1978), 『국어음운학(개고신판)』, 정음사.
- Schane, S. A.(1973), *Generative Phonology*, PRENTICE-HALL, INC.

**Abstract**

## Critical Study on "Assimilation" and "Vowel Assimilation" in School Grammar

Bae, Young-hwan

This is a critical study of "assimilation" as well as "vowel assimilation" which is the subordinate concept of assimilation described in the phoneme change unit of the school grammar. While the contents of school grammar do not necessarily have to match that of scientific grammar, this study dealt with "assimilation" and "vowel assimilation" under the premise that the description of school grammar must be logical based on academic grammar and uniform standard in order not to cause confusion for learners. First, the "assimilation" suggested as a phonological assimilation in the school grammar is a type of "alteration" as one phoneme turns into a nother that it shall not be described equally with alteration. "Assimilation", "alteration", "deletion", "insertion", and "contraction" are the phonological changes of different standards that it would make the description more systematic if the phonological changes such as alteration, deletion, insertion, and contraction are described first and then "assimilation" is described as a subordinate concept of "alteration." Also, descriptions in <Standard Pronunciation>, <Korean Dictionary>, and school grammar about 'i-progressive assimilation' do not match each other. Furthermore, this is rather "phonological insertion" as the semivowel, "i", is added to two phonological strings. This shall not be dealt with in the area of phonological assimilation but in the area of phonological 'insertion.' Finally, the vowel harmony that the school grammar treats as a type of vowel assimilation does not have phonetical and phonological features to classify bright vowel and dark vowel. Perhaps, brightness and darkness can be created but their meanings are ambiguous, and above all it is unclear how it is involved with the assimilation of phoneme.

Since vowel harmony is contracted by dark vowel in modern Korean, vowel harmony can no longer be considered as assimilation.

Key Words : school grammar, assimilation, vowel assimilation, glide insertion, vowel harmony

배영환

소속 : 서원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서원대학교 교양학부

전화번호 : 043) 299-8308, 010-9409-9034

전자우편 : baeyh@seowon.ac.kr

<p>이 논문은 2012년 11월 14일 투고되어 2012년 12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12월 11일 게재 확정됨.</p>
--